



자동차 히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지난 계절, 폭염으로 인해 자동차 에어컨 사용이 잦았다면 이제는 슬슬 히터를 켜는 시기가 돌아온 것이다.

자동차의 히터는 말 그대로 차량 송풍구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나와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난방장치이다. 히터는 가을을 시작으로 겨울까지 운전자의 필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운전자들을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다.

자동차 히터를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적절한 사용 시간과 온도 조절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운전할 때 조금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반적으로 에어컨은 한번 틀면 차의 차량 운동을 마칠 때까지 켜놓는 경우가 많지만 히터는 운전하는 내내 틀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안의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작동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자주 사용할 수도 있는 만큼 자동차의 히터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해 두면 차량 운행에 도움이 된다. 자동차 히터 사용 방법을 자동차 전문 사이트 '픽플러스' (1boon.kakao.com/pickplus)가 소개했다.

■ 시동 걸고 5분 뒤에



자동차 히터는 연료 분사와 폭발 작용으로 뜨거워진 엔진의 열을 차량 냉각수로 식히면서 얻어지는 열을 이용한 난방 방식이다. 그러므로 시동을 걸자마자 히터를 켜면 엔진이 충분히 가열되지 않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

자동차의 히터는 엔진 시동 이후 5-10분 정도 주행한 시점 즉, 엔진 열이 충분히 발생되었을 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작동 방법이다.

만약 주행 이후 엔진이 충분히 달아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히터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다면 차량의 냉각수의 양과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며, 냉각수 문제가 아닌 경우 서모스탯(냉각수가 저온일 때 닫혀 있

게 하여 적절한 온도를 만드는 장치), 히터 코어 관 상태 그리고, 송풍모터의 퓨즈 상태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 적절한 온도와 풍량 조절



자동차 히터를 내기 순환 모드로 장시간 동안 작동해 높은 실내 온도로 차량을 주행하면 차량 내부에 산소 부족이 발생해 운전 중 집중력 저하나 졸음 운전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실내 공기가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히터는 적절한 온도와 바람세기를 조절해 사용해야 한다. 차량 내부 온도는 보통 섭씨 21-23도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히터를 사용할 때는 우선 초반에는 히터 온도를 높여 작동했다가 어느 정도 차량 내부 공기가 따뜻해지면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한다.

또한 히터를 작동했다면 30분 정도에 외기 공기 유입 모드로 전환하고 자동차 창문을 열어 충분한 환기를 시켜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런 습관은 히터로 인한 차량 내 이산화탄소 증가를 막고 산소량은 늘려 사고를 유발하는 집중력 저하나 졸음 운전을 예방해 준다.



장시간 히터를 사용하면 자동차 내부 공기가 매우 건조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및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히터 풍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송풍 방향은 사람 얼굴이나 피부에 직접 닿게 하기보다는 아래, 다리 쪽으로 향하게 해 피부 및 기관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자동차 히터 관리는 이렇게



자동차 히터를 작동시킬 때 나오는 바람에서 악취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공조장치 내부와 통풍구 사이에 쌓여있던 먼지가 날리게 되면 운전자나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많은 운전자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냄새만 제거하려 각종 방향제를 사용하거나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해주는 에어컨 필터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다. 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거나 교체한 지 오래되었다면 새 제품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좋다. 에어컨 필터의 교환주기는 교체 후 6개월 정도, 주행거리상으로는 약 5,000마일 정도이다.

■ 졸음 운전은



졸음운전의 위험도는 음주운전 수준이다. 한국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졸음 운전은 음주운전에 비해 사망률이 1.7배 이상 높다.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약 60마일)로 달리는 도중 2-3초만 깜빡 졸아도 일반 도로에서 100m 이상을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졸음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17%의 만취 상태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사진=shutterstock>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12500 E. Sla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